

제 69 회 SGRA 포럼
제 7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역사 대중화’와 동아시아의 역사학」

일 시: 2022년 8월 6일(토요일) 오후 2시~오후 5시(한국시간) (예정)

방 법: 온라인(Zoom 웨비나)

주 최: 제 7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가능성 실행위원회

공동주최: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SGRA)

■개최 경위

본 ‘국사들의 대화’ 기획은, 자국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각국 연구자들의 대화 및 교류를 목적으로 201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6회 개최됐다. 국경을 넘어 수많은 참가자가 모여, 각국 국사(國史)의 현상학과 과제, 개별적인 실증연구를 둘러싼 논의와 교류를 이어왔다. 제 5회(2021년 1월 9일) 및 제 6회(2021년 9월 11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속에서도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온라인 개최를 시도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금번은 새로이 ‘역사대중화’를 다뤄, 문제제기와 3개국에서의 지정토론을 시작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 확대해 온 참가자들의 연대를 한층 더 깊게 하고자 한다. 또한 원활한 대화를 위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중국어, 일본어⇔중국어, 동시통역을 마련한다. 포럼 종료 뒤에는 강연록(SGRA 레포트)을 작성하고 참가자 에세이 등을 메일 매거진 등으로 사회에 널리 발신할 예정이다.

■개최 취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가운데 ‘국사들의 대화’에서는 온라인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벤트 개최 환경의 개선을 당분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종래 참가해온 사람들 간의 대화를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둔 기획을 준비했다.

주된 목적은 각국 역사학의 현상황을 둘러싸고 국사 연구자들이 가진 고민을 서로 나누고, 각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여, 앞으로의 대화를 활성화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고민은 실로 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번에는 그 중에서도 각국 사회정세의 변모, 다양한 미디어,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 하에서 새로운 수요에 맞춰 역사에 대한 언설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국사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역사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기존 역사학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구체적인 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공통적인 배경이 있다고 하여도 각국의 사회적 변화 양상에 따라 구체적 상황은 다종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우선 이러한 상황인식을 ‘역사대중화’라는 말로써 묶어낸 뒤 각국의 현상황을 보고하고 연구자 각각의 고민과 타개책을 가감 없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프로그램

제 1 세션(14:00-15:20) 종합사회 : 리 언민(李 恩民, 오비린대)				
	개회취지	10 분	펑 하오 (彭 浩)	오사카 공립대학
	문제제기	30 분	한 성민 (韓 成敏)	세종대
중국	지정토론	10 분	정 제시 (鄭 潔西)	원저우대학
일본	지정토론	10 분	무라 가즈아키 (村 和明)	도쿄대학
한국	지정토론	10 분	심 철기 (沈 哲基)	연세대학
	덧글	10 분	한 성민 (韓 成敏)	세종대
—휴식 10 분—				
제 2 세션(15:30~16:45) 모더레이터 : 남 기정(南 基正, 서울대)				
	논점정리	10 분	류 지에 (劉 傑)	와세다대
	자유토론	약 65 분	패널리스트 (문제제기자, 토론자, 국사 대화 프로젝트 참가자)	
—휴식 5 분—				
제 3 세션(16:45-17:00) 종합사회 : 리 언민(李 恩民, 오비린대)				
	총괄	10 분	미타니 히로시 (三谷 博)	도쿄대 명예교수
	폐회인사	5 분	조 광 (趙 珣)	고려대 명예교수
	동시통역	일본어⇔중국어 : 덩 리(베이징대), 송 강(베이징외국어대) 한국어⇔일본어 : 이 혜리(한국외대), 안 영희(한국외대) 중국어⇔한국어 : 김 단실(프리랜스), 박 현(교토대)		

■ 「국사들의 대화」 프로젝트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2015 년 7 월, 제 49 회 SGRA(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포럼을 개최해 ‘동아시아의 공공재’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동아시아에 ‘지(知)의 공유공간’ 혹은 ‘지(知)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로부터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창출해 동아시아에 제공하자는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 코너를 설치한 것은 2016 년 9 월의 아시아 미래회의를 기회로 개최된 제 1 회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 개국 연구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대화는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인식 하에,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대화를 가능케 할 조건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미타니 히로시 교수(도쿄대 명예교수), 거자오광 교수(푸단대 교수), 조광 교수(고려대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해, 3 국의 다양한 ‘국사’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했다.

제 2 회 대화에서는 자국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골침략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2017 년 8 월, 한국·일본·중국·몽골 등에서 11 명의 국사 연구자가 기타큐슈에 모여, 각국 국사의 시점에서 연구를 발표한 후, 동아시아 역사라는 시점에서 조공책봉의 문제, 몽골사와 중국사의 문제, 사료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의 모든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할 때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개개의 나라와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제 3 회 대화는 '17 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주제로 설정했다. 2018 년 8 월, 9 명의 한중일 국사 연구자가 서울에 모여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홍타이지의 조선침공 및 그 배경에 있는 은 무역을 주축으로 한 긴밀한 경제관계, 전란 후 안정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세 차례의 국사 대화를 되돌아보며 다음 단계로 계승하기 위해, 와세다대가 주관하는 '화해를 향한 역사가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검증'이라는 패널 토론을 개최했다.

제 4 회 대화에서는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이라는 테마로 2020 년 1 월 필리핀 마닐라시 근교에서 한중일 국사 연구자들이 모여 각국의 '서양에 대한 인식',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 발표하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 5 회 대화는 '19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을 테마로 하여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2021 년 1 월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19 세기에 감염병 문제를 각국이 어떻게 인식했고, 또 어떻게 대응책을 준비했는지를 검토하고 각국의 상호협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논문 발표와 함께 지난 4 회의 회의 참여자가 패널리스트로 다수 참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염병 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한 했지만, 결과적으로 Zoom 웨비나라는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전개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었다.

제 6 회 대화는 아시아 근현대의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을 주제로 제 5 회에 이어 온라인(3 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시오데 히로유키 교수(교토대)는 문제제기에서 근현대 사람의 이동을 좌우해온 국경에 초점을 맞춰, 사람의 이동이 국가주권체제 및 국제정치구조(제국주의와 냉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후의 세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유토론을 주제로 하여 하루를 소비한 다소 실험적인 구성이었지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본 프로젝트는 포럼, 세션의 대화뿐만 아니라, 3 개 국어에 대응한 레포트 배부와 메일매거진의 릴레이 에세이 등을 통해 원탁회의 참가자의 네트워크화의 도모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5 년에 걸친 경험의 축적으로, 270 명 이상의 한중일 국사 연구자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있다.

■국사들의 대화 레포트 지난호

제 1 회 국사대화 레포트 「한국·일본·중국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http://www.aisf.or.jp/sgra/korean/2017/08/07/sgra-report-no-79/>

제 2 회 국사대화 레포트 「몽골침략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

<http://www.aisf.or.jp/sgra/korean/2018/05/10/sgra-report-no-82/>

제 3 회 국사대화 레포트 「17 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전란에서 안정으로」

<http://www.aisf.or.jp/sgra/korean/2019/12/19/sgra-report-no-86/>

제 4 회 국사대화 레포트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http://www.aisf.or.jp/sgra/korean/2021/01/29/sgra_report_no_90/

제 5 회 국사대화 레포트 「19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https://www.aisf.or.jp/sgra/korean/2021/12/13/sgra-report-no-94/>

■ 메일매거진 지난호

<https://kokushinewsletter.tumblr.com/>